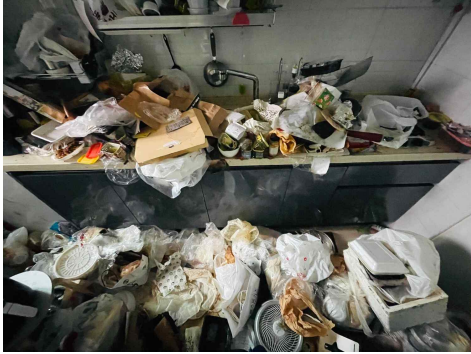


[1일차]

똑(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똑.....



(방 전체가 쓰레기 냄새로 가득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마는 외도에 아빠는 알코올 중독
찾은 부부싸움 덕에 난 방치되어 이 모양 이 꼴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적이 언제였더라..?"

"이젠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아니 살아갈 순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하고.. 망상이나 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감는다...)

.
. .
.

(땡동!)

"준노스케 씨!! 계십니까??"

"누구지?"

(벌떡)

"네 갑니다...; (나한테 올 게 있나..?)"

"준노스케 씨 맞으십니까?? (편지지를 건네며) 수령 사인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슬며시 보면서)

"(남자가 빨간 귀걸이??.. 스타일리쉬 하시네...ㅋ) 네~ 감사합니다~."

.
. .

"월세....는 아닌가 보네.. 누가 보낸거지?"

“준노스케 군에게
편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쪽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무슨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 편지 하나 올립니다.
소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날을 대비하여 기다리겠습니다.

-스즈키 치요코 올림-

"???? 이게... 뭐지?? 난 약속을 잡을 적이 없는데..
그건 그렇고 소녀? 요즘시대에 이런 말투를 왜 쓰는거야?"

(꼬르르륵)

".... 배고프네..."

[잔금 : 12480원]

"...편의점에서 먹어야겠네... 오늘따라 집밥이 먹고싶다...."

.
.

[카톡!]

"...뭐야....."

- 아들아, 잘 지내니?

무슨일인데요 -

- ..사실 엄마가 사업을 할거라서
- 300만원만보내줄 수 있니??

이런걸로 연락하지 마세요 -

뭐?? 엄마라는 인간이 자식한테 할 행동이야?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300만원????

.

.

하.....

(깊은 한숨만이 위로하듯 내 몸을 타고 올라온다.)

"언제까지 이러면서 살아야해...."

.

.

.

"난 뭐하러 살고있는거지?"

어렸을 적 소설에서 본 말이있다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그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인정하고싶지 않은 말..

"그렇게 삶이 덧없다면 내 인생도 바꿔보든가..."

(이런 저런 망상과 한탄을 하며 우는 배를 붙잡고 새우잠을 잔다.)

.

.

.

.

.

.

"....."

"여긴 어디지..? 드디어 죽은 건가..?"

(주변을 둘러본다)

"너무 느낌이 생생한데..? 뭐.. 게임에서 흔하게 보이는 전생? 이전? 그건 그렇고 진짜 예쁜
곳이네.. 이런 곳이라도 둘러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어??? 여긴 편지에서 봤던 장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벅 저벅)

"준노스케..씨...?"

"뭐야? 누구세요? 왜 절 아시죠?"

"준노스케씨 맞죠?"

"아니 당신 누군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저의 부주의로 이런 상황이 와버려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스즈키가의 스즈키 치요코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혹시 지금이 몇 년도죠?"

"1920년 11월 20일이죠?"

"(진짜 과거야???? 뭘 말이 안되는..)"

"일단 이쪽으로 오시지...."

팅!

.

.

.

.

.

"(뭐야... 뭔가 밀쳐진 느낌인데... 가위 눌렸나? 최근에 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냐.)"

"(꿈... 이겠지? 너무 생생하긴 했는데..)"

(벨소리)

"여보세요?"

"준노스케! 잘 지내냐?"

"(이 새끼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내던 유일한 부랄친구 미즈우시 텃카이. 대충 말하자면 병신

이다.)”

“왜 전화했냐?”

“너 밥도 제대로 안먹지? 밥 한 끼 살테니까 앞으로 나와라.”

“사랑해”

(친구가 보너스를 받았다고 전골을 사줬다! 역시 인생의 마지막은 친구로 마무리 된다지? 내가 엄마 아빠는 개같이 뒤편 친구는 잘 사귀었다니까!!)

“잘 먹었냐?”

“존나 맛있었다. 오랜만에 맛있는거 먹었네. 고맙다.”

“요즘 무슨 일 있냐? 별일 없이 지내?”

“요즘 피곤한가봐. 이상한 꿈이나 꾸고.. 근데 꿈에서 나온 여자에 진짜 귀여웠다?”

“ㅋㅋㅋㅋㅋ 혹시 몰라 진짜일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좇같은 삶 그만두고 미소녀랑 콩냥대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ㅋㅋㅋ 그 꿈이 진짜이긴 힘들겠지만 그런 개꿈이라도 분명 의미는 있을 거야. 힘내라!”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이런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이 편지랑 그 꿈... 인정하긴 힘들겠지만 이거 진짜겠지?”

“다시 그 세계로 갈 수 있으려나?”

.

.

.

zZ..zZ..zZ

.

.

(벌떡)

“..... 진짜 왔네..?”

“다시 그 집으로 가볼까?”

(저벅 저벅)

“이 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스즈키씨!”

“준노스케 군? 다시 와주셨군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스즈키씨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야..... 저택 보소? 놀라게 크네?)”

“시원찮은 대접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과거로 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뭐야..이세계가 아니라 과거였어?)”

“사실 저희 가문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 할 수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지만...능력도 약해서 미래를 자세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로 돌아온 것처럼 실질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내가 처음이라는 거지?”

“네. 이런 적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저희도 놀랐지만.. 사실 준노스케 군을 이곳으로 부른건 다름이 아니라....“

“혹시 미래인인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아니 저...”

“(무슨 일이지? 혹시 일본의 위기가 달린 중대한 사건?)”

“혹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던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의 부주의 때문에 잘못 전이된 것 같습니다..”

“(아..그냥 실수구나...)”

“하지만 이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도록 해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괜찮아요! 근데 원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도 아시나요?”

“저희 가문은 그런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내가 원래 세계로 돌아간 원인은 뭐지?)”

“일단 과거를 실제로 경험 해보는 건 처음이죠? 주변이나 둘러볼까요? 소개해드릴게요!”

“(오! 다이쇼 로망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건가???)”

“준노스케 군, 여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가는 벚꽃 나무예요. 아직 가을이라 꽃이 피진 않았지만 만개하면 세상의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요.”

“꼭 한번 보고싶네요...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어서 옷 벗은 나무도 오랜만이네..)

만개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하지만 이곳은 가을 풍경도 좋다구요? 그것보다 준노스케 군 출출하지 않으세요? 제가 좋아 하는 식당이 있는데 소개해드르..”

팅!

.

.

.

“뭐야... 또? 튕겨지는 느낌이....”

.

.

“미래에 간섭하는 능력이 제한이 있는건가?”

“후....어지러워.... 산책이나 할까?”

.

.

(저벅 저벅)

.

.

“(과거로 돌아가는 조건은 뭐지?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조건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하.... 모르는 것 투성이구만..”

(뚜르르)

.

.

(뚜르르)

.

.

“텃카이, 지금 시간 있냐??”

.

.

“이 시간에 왜 불렀어? 뭘 일 있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과거로 갔었다는 그 일?? 그거 진짜야?”

“그 편지랑 내가 몸으로 직접 느꼈던 그 생생한 기억들이 우연일리는 없어.”

“와... 진짜 신기하네.. 이게 진짜라고??”

“여러가지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조건들이나 부작용이나 등등..”

“힘들면 말해.. 밥 한 끼 정도는 사줄게..!”

“아무 증거도 없는데 믿어주는구나? 미즈우시군... 믿고 있었다구..!”

“나 아니면 누가 널 믿어 주냐? 나라도 믿어 줘야 너가 의욕이 생기지ㅋㅋ”

“그래..! 집 가서 여러 가지 시험해 보고 연락 줄게!”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본다.)

“항상 잠 잘 때 마다 과거로 돌아갔단 말이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볼까?”

(다음날 아침)

“..... 이걸 아닌가 보네...”

(그 날 저녁)

“내가 처음에 한 행동이 뭐지?

(첫 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옷은 이거 밖에 없어서 그대로였는데.... 편지..?”

(편지를 손에 쥔 채 잠을 자본다.)

“이거다. 다시 다이쇼로 왔어.. 조건은 스즈키씨와 관련된 물건을 만지는 건가..?”

“일단 스즈키씨에게 가자.”

.

.

(뚜벅 뚜벅)

.

.

.

“..? 스즈키씨 옆에 누구지?”

(둘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쪽과 약혼할 생각 절대 없습니다.”

“계속 텅기지 마시고 ㅎㅎ 치요코씨께서 약혼을 해주셔야 스즈키 가문의 부흥도 도움이 된다니 까요??”

“저는 달리 마음을 둔 분이 계셔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아~ 혹시 그 수수하게 생긴 미래인??”

“!!!”

“.....그 분과는 관련 없어요.”

“반응 보니까 맞네 그 새끼..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쫓아 다녀요? 그 사람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

“뭐, 더 할 말도 없어 보이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

.

(“뭐야.. 이쪽으로 걸어오잖아?.. 빨리 숨어야겠다..”)

“약혼 건은... 음.. 저기 저 벚꽃이 질 때까지 정해주세요^^.. 저 오래는 못기다립니까?”

(뚜벅 뚜벅)

“(...갔나? 대체 저 사람은 뭐지? 친해 보이진 않은데....)”

“(그건 그렇고 미래인 이면... 날 말하는 거겠지? 분위기 이상하니까 이따가 들어가야 겠다..”

“스즈키씨!”

“준노스케 군, 오셨군요..?”

“(스즈키씨 역시 저기압이네...)”

“스즈키씨! 시간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준비할게요!”

.

.

“와... 경치 진짜 이쁘네요?”

“그쵸? 여기서 이 지역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일본의 변화가는 노을 안에 한 가득 아름답게 담겼다.)

“준노스케 군.”

“네? (왜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지?)

“아까... 보셨죠?”

“.....네.”

“.....그 사람은 사토 가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저희 가문을 노리는 사람이죠.”

“왜 스즈키 가를 노리는 거죠? 혹시 미래를 노리고?”

“스즈키 가의 미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마 미래를 노리고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것도 돕지 못하는 나...한심하다..)”

“ㄷ..준노스케 군! 저.. 염치없지만 부탁이 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뭐지..스즈키 씨 안절부절 하신데?)”

“ㄷ...저랑...저랑 ㅇ!”

팅!

.

.

.

“..... 씨발...왜 하필 지금 돌아오는 거야..”

(시계를 본다.)

“어? 시간이 그대론데?”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현실의 시간은 멈춰있구나?”

“어떤 이유로 내가 현재로 돌아 온지는 모르겠지만, 현생도 살아야겠지?”

“알바나 가야겠다!”

(5시간 후)

“어후... 3일 전에도 했었는데 오랜만이라고 느껴지네...”

“근데 분명 현재의 나는 밥을 안 먹지 않았나? 왜 배가 안고프지?”

(곰곰히 생각해보자.)

“내 정신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 그 자체가 과거로 가는건가? 그러면 배가 안 고픈 게 맞는데...”

“아무튼 이득이니까 상관없겠지? 밥은 앞으로 과거에서 먹는 게 나을 수도?”

“하... 그냥 과거에서 살고 싶다...그냥 안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슬슬 해가 뜨네?.. 알바 때문에 힘든데 잠이나 자야겠다.”

.

.

zZ.....zZ.....zZ....

"음! 다시 과거로 왔군!"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텅졌던 장소랑 멀지 않은 곳으로 오는 느낌?”

.

.

“오늘은 혼자 돌아다녀볼까? 시내 쪽 시장이나 둘러봐야겠다.”

(뚜벅 뚜벅)

.

.

.

“오오... 내가 다이쇼 시대 시장을 두 눈으로 볼 줄이야...”

.

.

“오? 저 귀걸이 저번 우체국 아조씨가 찬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ㅋㅋ 역시 옛날 꺼구나?”

“여기 있는 물건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아깝다!”

.

.

“저기요! 거기 남성분??”

“네? 절 부른 건...가요..(저번에 봤던 사토 가 사람..)”

“그쪽 맞죠? 미래인.”

“절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날 알았지?)”

“잘 알고 있죠. 일단 자리를 옮길까요?”

.

.

.

“이쯤이면 보는 눈도 없겠죠. 일단 제 소개를 하죠. 사토 가 후계자인 사토 미라이 라고 합니다. 준노스케 군? 더 이상 과거로 오지 마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의 계획에 매우 큰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건 저와 상관이 없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 때문에 스즈키 씨를 노리는 거죠?”

“.....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의미가 없겠네요. 사실대로 말씀 드리죠. 저의 사토 가 또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

“먼 미래를 보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제 능력이 무언가와 충돌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처음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궁금했죠... 준노스케 군.”

“네.”

“미래라는 게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죠.”

“맞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제 능력이 왜 충돌했을까요?”

“.....”

“미래를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존재가 간섭했기 때문 아닐까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각각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존재가 미래에 간섭하려고 하면, 텅! 하고 튕겨나가 버리죠. 거기서 생각했어요. [미래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스즈키 씨를 손에 넣어서 뭘 하실 셈이죠?”

“제가 대답해 줄 의무는 없지만 특별히 말해드리죠. 미래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미래인이 과거로 넘어 온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사토 가와 스즈키 가의 힘을 합친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대를 바꾸시겠다구요??”

“제가 무슨 상관이죠? 제가 미래를 바꾼다면 의미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토 씨,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당신 능력... 진짜 미래시 밖에 없어요?”

“.....”

“하.. 정말 감이 좋으시네?? 맞아요, 현재에 간섭하는 능력도 있어요ㅎㅎ.”

“미래에서 현재로 간섭한 저를 당신의 현재 간섭으로 튕겨냈다. 맞죠?”

“생긴 것과 다르게 머리를 잘 쓰시네요?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죠?”

“.....”

“뭐가 됐든 시대에 간섭을 한다는 능력은 굉장한 힘이 소모 돼요. 그래서 당신을 바로바로 튕겨내지 못했던 거고. 아무튼 얘기 잘했어요!... 그럼 다시 너 시대로 돌아가.”

텅!

.

.

.

(깜짝)

“헉...허억....”

“이제야 모두 알았다...”

“(알았다고 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지?)”

“약점이 있을 거야... 분명 그 때 소모되는 힘이 크다고 했지? 연속적으로 과거로 가면 틈이 분명 생길 가능성이 있어.”

.

.

[누군가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을 텐데..”

“정신 차리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토 가는 어떤 수를 써서든 스즈키 씨를 손에 넣으려고 할 거야.. 그것만은 꼭 막아야해!”

(약국에 간다)

“혹시 제일 강한 수면제 있나요?”

“그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진단서는 여기 있어요.(우울증으로 시달리던 때 병원에 간 게 여기서 도움이 될 줄이야..)”

“음...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

“이 수면제는 [스틸녹스CR]라고 하구요. 자기 전에 복용하시고 꼭 주무시길 권장 드려요. 3주치만 드릴 테니까 상황 보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과다 복용하시면 큰일 나니까 꼭 권장량만 복용하세요.”

.

.

(철컹)

“시작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뿐이야.”

(숨을 고르고 잠에 든다.)

.

.

“우선 빨리 스즈키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스즈키 가를 향해 달려간다.)

“스즈키 씨!! 스즈키 씨!!!”

“준노스케 군? 무슨 일이시죠? 지금 큰일이 나서 대화할 시간이...”

“큰일이요??...혹시 무슨 일이죠?”

“사실 좀 전에 사토 가 사람이 저희 가문의 이능 구슬을 도난해갔어요. 구슬이 없으면 저는 미래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어요. 물론 일반인이 그 구슬을 다룰 수 있는게 아니라서 큰일은 안 나겠지만요.”

“큰일 나요...”

“네? 무슨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미래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문은 스즈키 가가 끝이 아니에요. 사토가 또한 미래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에 간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토 가가 미래시를 가지고 있다구요? 거기다 현재까지?”

(그 외의 것을 빠르게 설명했다.)

“음...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아까 이능 구슬을 가져갔다고 했지? 아마 그게 사토 가의 힘을 끌어올리는 원천이라고 봐야겠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아직은 사토 가가 힘을 충전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니까 꼭 막아야.”

팅!

“어...? 벌써????”

“이럴 리가... 구슬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였어????”

“...생각 할 시간이 없어.. 다시 가야해..!”

(수면제를 복용한다.)

.
.

“준노스케 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구슬을 뺏겨버려서 계속해서 저를 튕겨 버릴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올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 과거의 삶은 한마디로 [무의미]였어요. 부모님은 매일 싸우고, 가정폭력에 이혼까지, 저는 안중에도 없어지고 성인이 되자마자 버려졌죠. 뭐 배운 것도 없었는데.. 인생이 막막했어요. 인간관계도 잘 형성되지도 않았고 학습 미달에 우울증까지 달고 살았는데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때 스즈키 씨랑 만났어요.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 사람.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앞으로 스즈키 씨를 만나지 못 할 상상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상상을 하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울먹거리며) 준노스케 군...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게요..

(준노스케 군에게 안겨들려 한다.)

팅!

“타이밍 참 잘 잡으시네요 사토 씨.... 절대 포기 못해.”

팅!

.
.

팅!

.
.

팅!팅!팅

.

.

팅!팅!팅!팅!팅!팅!팅!팅!

.

.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

.

.

.

.

.

.

“몇..번째지..? 죽고 싶다. 토할 것 같아.. 벌써 약이.... 3주치 약인데 안죽는 것도 신기하네..”

.

.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지금까지 이따구로 살아온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있을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주인공마냥 나대는게 진짜 의미있을까?”

.

.

“포기할까..?” —> 루트 1 : True Ending / 루트 2 : Bad Ending

(처음 과거에 갔던 날, 스즈키 씨와 함께 했던 날이 떠오른다.)

“주마등인가...? 아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모두가 날 부정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으음..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네. 잠깐 나갔다가 오자.”

“편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텃카이한테는 보내 놔야겠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손 편지라니... 뭔가 이게 진심이 담겨진 느낌이란 말이지?”

(우체국으로 자리를 옮긴다.)

“편지만 보내놓고 다시...”

(반짝..)

“어? 저 귀걸이.. 잠깐만요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아니.. 지금 시대로 따지면 얼마 안됐죠?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처음 봤을 때 보다는 눈이 살아있네요. 간절해 보여요. 느낀 점이 많았겠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당신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떻게....”

“안타깝게도 옛날 저희 켄자이 가문도 사토 가에 의해서 이능 구슬을 빼앗겼어요. 현실에 간섭하는 이능 구슬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죠?”

“저는 실패했어요.”

“네?”

“지인을 통해 저도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튕겨져 나갔다가.. 그래서 저희 가문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과거를 바꿔보려고 힘썼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죠.”

“그런....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봐 왔던 이야기에요.”

1919년 10월 31일

“...뭐야... 과거로 간다는게 진짜였어? 몇 년도지? 1910?? 1920??”

“....헉! 할아버지잖아?? 진짜 과거 맞나보네..”

“할아버지!!!”

“너는 누구지?”

“(아! 할아버지는 아직 날 모르지?)”

“저는 미래에서 온 당신의 손자, 켄자이 사토루 라고 합니다.”

“미래에서 왔다고? 당신도 이능력자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지?”

“할아버지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간식 훔쳤다가 혼났죠?”

“ㅇ..어?? 그걸 어떻게..”

“그리고 어릴 때 지나가던 20살 여자분에게 고백했다가 차인 것도 알고 있”

“그만!.. 알았어.. 너 말이 진실인건..”

“음.. 확실히 날 닮긴 했네. 잘 생겼구만! 아직 우리 가문에 대해서 잘 모르지? 설명해 줄테니
이쪽으로 오렴.”

.

.

“우와... 이게 우리 이능 구슬이군요?”

“그래.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해서 만든 게 이 귀걸이란다.”

“진짜 예쁘다...”

“내 손자니까 너에게 줄게. 한 번 차봐.”

“진짜요? 와... 예쁘다. 잘 쓸게요! 할아버지.”

1920 10월 31일

“벌써 여기 온 지 1년이네요?”

“우리 손주 온지가 벌써 이렇게 됐나?”

“1년 동안 경험했는데 아직도 이 시대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진짜 재밌네요.”

“(오늘은 또 뭘 해볼까?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생일이 오늘 아닌가? 보답해야겠지?)”

“할아버지! 저 백화점 좀 구경해볼게요!”

.

.

“할아버지 시계가 너무 낡으셨던데.. 좋은거로 바꿔 드리자. 이 시대는 화폐가치가 높아서
좋은 말이지?”

“침입자다!! 모두 퇴로를 막아!!”

“경비병! 무슨 일이죠?”

“어떤 침입자가 저희 이능 구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뭐라구요? (탁! 탁! 탁! 탁!)”

“도련님!! 저택 안은 위험합니다!!!”

.

.

“할아버지!”

“미라이? 도망가! 여긴 위험해!!”

“뭐야..음? 미래인 인가? 너 시대로 돌아가라.”

팅!

.

.

“...? 뭐지? 왜 돌아가지지 않는 거지?”

“내가 내 손자를 그냥 뒀을 것 같아?”

“음... 귀걸이구나?”

“!!.. 그걸 어떻게..”

“내가 직감이 좋아서 말이야.. 그 귀걸이에서 이상한 힘이 나오는건 쉽게 알 수 있다고?”

“미라이! 도망가라!”

“(총을 들며)내 손에 든 거 보이지? 손 들고 꿇어.”

“크윽..!”

짜악!

“아악!!!!”

(귀걸이를 잡아 뜯었다.)

“미라이!!!”

“그럼... 둘 다 잘 가”

탕!

“그렇게 할아버지는 총에 맞고 죽었고, 나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귀걸이는 원래 시대로 튕겨내는 능력을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두 개 모두 있어야해.. 하나는 저에게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있죠?”

“저기 박물관 보이시나요?”

“저 박물관이 왜..”

“저긴 사토 가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이에요.”

“네???”

“저기 가장 안쪽에 나머지 귀걸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준노스케 씨.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 맡길 게요.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미라이 씨.”

그날 밤...

“내가 살다살다 박물관 도둑질을 할 줄이야.. 아니 따지고 보면 빼앗긴 물건 가져오는 거잖아? 죄책감 가지지 말자.”

타다다다닥!

“아니 여기가 뭐라고.. 개 넓네... 좀 더 살펴보자.”

.....

“여긴가..? 딱 봐도 ‘여기 비싼 거 있어요’ 하는 느낌인데?

(스윽)

“찾았다. 우체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거랑 똑같아.”

“거기 누구야!!!”

“음! 들켰나??”

“누구냐!!! 당상 그거 내려놓고 손 들어!”

“크윽..!”

(순찰중인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다.)

파지지지직!!

“으윽....”

.
. .
. .
. .

“뭐야? 왜 과거로..... 편지 가져오길 잘했네. 빨리 스즈키 씨한테...”

(최대한 빠르게 뛰어간다.)

“허억...허억....스즈키 씨!!!”

“준노스케 군? 어떻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빨리 구슬을 가지고 도망가야...”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그 귀걸이...어떻게 당신 손에 있는거죠? 정말로 쓰레기 같은 것이... 포기하면 편할텐데 목숨이 안아까우신가 보죠?”

“어떻게 벌써... 경비원들은..”

“사토 가의 전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경비원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노스케 군. 곧 따라 보내 드릴테니까...”

“니 마음대로 둘 것 같아??? 히야아!”

(사토에게 달려든다.)

“!! 이 미친한 것이 나한테..!”

(퍼억!)

“으윽! (이럴 줄 알았으면 싸움 좀 배워둘걸..)”

“그렇게 빨리 경비원들 따라가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안쪽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든다.)

“!!!!... 다리가.. 안움직..”

탕!

(총알이 다리에 맞았다.)

“으윽!!”

“준노스케 군!!.. 사토 씨.. 제발.. 제발 그만 해주세요... 구슬이라면 드릴 테니까 제발..”

“내가 구슬만 보고 왔을 것 같아?? 너 만한 여자가 이 주변에 어디 있다고... 이 새끼 죽이고 모든 걸 손에 넣을거야.”

“크윽...이 새끼가.... (아무 생각을 못하겠어... 이게 진짜 총에 맞는 느낌이구나..)”

“야ㅋㅋ 이제 머리 좀 돌아가냐? 존나게 아프지?? 너 죽이고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스킨 뽀빠 좋은 거 하러간다?ㅋㅋㅋㅋ 이 주변엔 애 만큼 반반한 놈도 없거든..”

“준노스케 군!”

(준노스케에게 뛰어간다.)

“이 년이....”

퍼억!

“내가 언제 움직여도 된다고 했지? 성급하게 굴지마. 너는 나중에 재밌게 즐겨줄게ㅋㅋㅋ”

“(조금만 더... 곧 있으면...)”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준노스케 씨!”

“네??”

“귀걸이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요.”

“중요한 건가요?”

“옛날에 할아버지께 들은 건데 그 귀걸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몸에서 떨어지면 폭발해요. 운이 안 좋으면 사람 죽어요. 조심하세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야! 뭐라도 좀 말해보지? 참... 재미없게....”

(콰악!)

“아악!!! 이 년이 진짜 미쳤나...”

퍽!... 퍽! 퍽!

“음!.. 준노스케 군.. 빨리 도망가 주세요...”

“내가 봐주니까 정신이 나갔지? 너도 다리에 구멍 하나 나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스즈키에게 총을 겨눈다.)

(동시에 귀걸이가 보라색으로 변하였다.)

“...됐다.. (여기서 같이 터지면... 나도 죽을 수도 있겠지?)”

.

.

(심호흡을 한다.)“

.

“스즈키 씨,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구처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쓸모 없었던 제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제 삶에 의미를 찾아주시고, 제 삶에서 다른 색깔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귀걸이를 손에 쥐고 사토에게 뛰어간다.)

“?? 이 새끼 무슨..”

(손에 쥐어진 귀걸이를 본다.)

“...!! 야.. 떨어져!! 꺼지라고!!!!”

.

.

.

.

(반짝!)

.

.

.

.

(방 안이 연기로 자욱하다.)

.

.

.

“(조용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
.

“(나 죽은 건가?)”

.

“(사람 뒤질 땐 주마등 보인다면서... 구라 치네..ㅋ..ㅋ..ㅋ..)”

.

“준노스케 군... 준노스케 군!!! 일어나요!! 제발... 죽으면 안돼....”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데.)”

.

(스즈키의 눈물이 준노스케의 얼굴을 붙잡는 듯 흐른다.)

“(울지 말라고, 빨리 손수건이라도 전해 줘야 하는데.)”

.

.

“(아.. 이젠 안되겠다...)”

.

.

(눈기 감긴다.)

.

“안돼!!!!!!!!!!”

.

.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우는 얼굴이라니.. 이런 작별은 원하지 않았는데..웃는 얼굴로 보내 주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목소리를 쥐어 짜낸다.)

“치요코..”

“...!!! 준노스케 군?”

“좋아해...”

이 뒤로는 의식이 없다.

죽었는지도, 기적적으로 살았는지도.

내가 눈을 뜨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내가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살았..다?)”

“(수면제 때도 그렇고 정말... 나 생명력은 바퀴벌레 급이네..)”

(병원 복도로 나간다)

“스즈키 씨는 어디 계시는 거지?”

.

.

(뚜벅 뚜벅)

.

.

“아아아... 진짜 걸기도 힘드네.. 그래도 휠체어 안 타는게 어디야.”

썹그랑!

“...!! 준노스케 군..?”

“오랜만? 이예요.. 스즈키 씨..”

(와락!)

“진짜....진짜... 걱정 했다고요.....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휠체어는 왜 안타셨어요?”

“....타야되는 거였나요?”

.

.

.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스즈키 씨에겐 엄청 혼났지만..)”

“딱 벚꽃이 만개할 때네요. 준노스케 군! 광장으로 가요!”

.

.

.

“우와.....”

“드디어 볼 수 있네요. 저희 지역의 명물, 정말 예쁘죠?”

“네...이런 벚꽃은 태어나서 처음봐요. TV나 애니에서만 보던 나무를 현실에서 볼 줄이야...”

“사토 씨는 폭발에 휩쓸려서 즉사했고, 사토 가는 지금까지의 행적들이 모두 들통 나서 파문 당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준노스케 군이 없다면... 이 세계는 사토 가에게 넘어갔을 지도 모르네요... 지금도 마구 혼내 주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
·
하고 싶은 말이 더 쌓여있었지만 벚꽃과 서로를 번갈아 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치요코 씨.”

“네....?”

“궁금한게 있는데.. 절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

(과거 스즈키 치요코 시점)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 걸으론 착한 척,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양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 우리가 명문가이기 때문에. 아가씨, 아가씨, 말만 번지르르...”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며 나와 의 약혼만 원하면서... 나의 내면... 진정한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이런 인생 이젠 지긋지긋해...”

(14살 무렵)

“21세기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 사람은 뭐지?”

그때부터 나는 이름도 모르지만 나와 같은 얼굴을 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다.

“이름이 준노스케 님...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얼굴.”

“근데 이 위화감은 뭐지? 나와 분명 같은 얼굴인데... 나와는 다른 느낌....”

이 이후로 준노스케 님을 항상 살펴봤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 허수아비 존재인데 현실에서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낼 바에 미래를 보는 편이 더 재미있었다.

준노스케 님을 살펴본 지 며칠이 지나고, 준노스케 님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과 사이 라던가, 하나 뿐인 친구가 있다던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라던가...

알고 싶었다. 나보다도 더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아왔으면서, 그렇게 텅 빈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 지 너무나 궁금했다.

(15살 무렵)

(어른들이 얘기하는 소리)

“뭐라구요? 켄자이 가에서 미래인이 왔다구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미래인을 만날 수 있어...?)”

이야기에 집중한다.

이야기를 듣고 과거와 관련된 물건이 미래와 맞닿으면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진짜인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미래를 보는 도중)

“음...? 저 우체부 아저씨 뭔가 이상한데? 나랑 같은 쪽 사람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
. .
.

“후.. 다 썼다... 이상하게 안보시겠지? 이 정도면 잘 썼겠지?”

(힘을 집중한다.)

“....!!”

“성공했다!! 이제 준노스케 님이 편지를 받고... 운에 맡기는 것 뿐이야....”

(준노스케와 스즈키가 만나는 씬)

“비밀이에요..!”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저는 준노스케 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노스케 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드디어 만났는데... 놓칠 수 있을 리가.

(갑작스럽게 준노스케의 품으로 안겨든다.)

“치요코 씨? 갑자기.. ㄹ...?”

(준노스케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준노스케 군.. 어제의 대답... 아직 못해드렸죠?”

.

.

.

.

“저도 준노스케 군을 좋아해요..!”

(한 번 더 입을 맞춘다.)

치요코 씨의 입술이 매우 따뜻하다... 뭔가 마음이 꽉 채워진 느낌

하지만 그런 것 보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름 모를 작가님... 역시 인생을 더 많이 경험하신 선배님의 말일까? 당신 말이 맞았네요.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왔더라도, 그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다-

썩스신은 나중에

